

###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귄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살 (131호), 4-5살 (130호),  
1-5학년: Promise Land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 봉사 당번 안내

	8/7	8/14	8/21	8/28
헬로우십 다과	레바논 리포트	샤론/미엔	미안마	아테네
어린이 돌봄	레바논 리포트	이은경, 조희정 / 이윤경, 이창열	장경림, 신윤선 / 유세정, 조지영	이새롬, 이미혜 / 박영미, 나찬미
주차 봉사	유광현/홍영기	이호순/이형섭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예배 안내	라운 (8월) & 바마코 (9월)			

###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5가정(부부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부부 목장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IMAN	나정우/찬미	금 7:30 pm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메디	홍영기/진영	금 6 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 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스팍스	박진환/미희	주일 4p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형제 목장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목장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안마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1-11)

균형 잡힌 성장	응답하는 예배	살롬 공동체	변혁 공동체
Pursuing Truth	Responding in Worship	Marked by Love	Living the Gospel

# 하나님 나라 이야기



## 복음과 인종 The Gospel & Race

본문: 누가복음 2장 8-10절  
설교: 에릭 녹스\*

### 누가복음 2장 8-10절

- (8절)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 (9절)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또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다”라는 논쟁이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사실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소외된 자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 성경을 볼 때에 단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도록 하십시오.
2.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유색인들의 공동체와 한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 오늘 대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Eric Knox는 SE Portland에 위치한 Imago Dei Community의 목사입니다.

#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레바논 선교에 참여하면서



한 남자가 한 가정이 한 달동안 버텨낸 70파운드 구호품이 든 자루를 받기 위해 물품 창고가 있는 배급소에 왔습니다. 이 곳은 레바논의 남쪽, 성경속의 도시 시돈 지역입니다. 우리의 호스트이며 동역자인 Heart for Lebanon 단체의 대원들과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이 열심히 구호품을 나눠주는 동안 이 남자는 이상하게 낯은 차에 기대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 얼굴 너머로 까만 히잡을 한 여인들이 물품자루를 받기 위해 줄지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존심이 강하게 생긴 이 남성의 얼굴은 굳어 있고 여전히 고개를 숙인채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마트라는 이름의 난민으로 레바논에 온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50대 중반 쯤 되어 보이는 그는 현재 큰 딸과 함께 살고 있고, 둘째 딸은 터키에 있고, 셋째 아들은 독일에 막내 아들은 피난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는 시리아 석유관련 회사에서 일하였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스트가 마련한 우리 단기 선교팀과의 만남의 자리에 승락은 했지만 그는 오래동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의 종교, 이슬람을 버리기가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 Heart for Lebanon 단체에 취직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빌딩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간 이하의 대접과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그가 종교적인 혼돈속에 고민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생활을 위하여 크리스천 단체에 취직을 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일 일 것입니다. 아랍어 통역자를 통하여 일상적 질의응답이 오고가던 중에 우리팀원 중 한 명이 돌연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도 당신과 같이 한때는 난민이었습니다. 그 분은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 그런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며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마트의 얼굴은 상기되었지만 말을 아끼는 것 같았고, 많은 생각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시리아의 평화가 찾아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시리아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습니다. 이렇게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은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울리며 동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우 형제)

올해 메디칼팀은 2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작은 한 교회를 통해 파송 받아 레바논에서 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 캠프에서 그 분들과 동역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치과와 일반 진료소를 열어 환자들을 돌보고 그에 필요한 인적, 기술, 재정 자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 함께 일한 팀원들과 호스트가 모두 한국 사람들이어서(통역 1명을 제외하고는) 아침마다 우리말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선교는 서로 지원, 동역, 자원 공유와 같은 파트너십 없이는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는 빌리지 공동체가 감사합니다. 또한 다문화 공동체라는 저희 빌리지의 귀한 특성이 다양한 문화의 필요가 있는 곳이면 지역이든, 글로벌이든 주님의 부르심에 누구라도 갈수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형제, 자매님의 중보와 재정지원의 파트너십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우 자매)

저는 레바논에 온 시리아 난민들에게 치과 진료 봉사를 하였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은 가난과 상실과 절망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안에서 새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은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또 다시 다른 무슬림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일기에 주님안에서 함께 동역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Sean Kim 형제)





제가 레바논 단기선교에서 경험한 것들의 모든 것을 네 단어로 짧게 축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진실로 상상을 초월하신다”입니다. 레바논에 가기전에 저는 학교, 친구, 가족, 교회 생활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들을 옮기는 일, 특히 나에게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제 쳇바퀴 도는 일상의 틀안에 그냥 가둬 두었습니다. 그러나 2주간의 레바논 여행기간 동안 Heart for Lebanon 단체와 난민들, 단기선교 팀원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일들은 비참한 상실과 절망속에서도 사람들을 사용하여 거룩한 섭리와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 놓은 경계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뛰어 넘어서서 빠른 시간안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레바논 여행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절망적인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가 임하심을 보았고 그로인해 제 삶의 눈이 그분의 능력으로 더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다비 자매)

저는 구제 및 기도팀의 일원으로 난민캠프를 방문하여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난민 가족에게 배급되는 물품들을 포장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Heart for Lebanon의 스텝들의 주도하에 함께 동역하였는데, 비참한 상황가운데에 놓인 난민들에게 Heart for Lebanon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NGO가 크리스찬 색채를 점점 버리고 있는 시점에서, Heart for Lebanon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South 지역만 하더라도, 한달에 4명의 스텝이 대략 150 가정을 방문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거의 대부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는 사역이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비전없이 감당하기 힘든 사역일 것 입니다. 이런 그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Heart for Lebanon에서 제공하는 한 성경공부에 40명이 넘는 무슬림 여성이 참여하고 있고, 비록 여전히 히잡을 쓰며 무슬림의 문화를 온전히 벗어나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그들의 삶 깊숙히 침투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조금씩 열리고 변화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동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장지선 자매)

이번 단기선교를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 사진에는 레바논 국적의 교사가 초취하고 더러운 시리아 난민어린이를 사랑으로 꼭 껴안고 입맞춤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죽었거나 행방불명이고 그들이 간직했던 모든 것들은 시리아전쟁으로 인해 다 사라졌으며 이제는 텐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 Heart for Lebanon 단체는 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기간동안 페인팅 봉사를 한 곳은 이러한 난민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요. 한때 시리아에게 점령당한적이 있는 레바논을 보면서 만약 일본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한국에 온다면 한국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런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한 것은 제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장면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주리 자매)

이번 레바논 단기선교를 통해서 머리로만 알았던 난민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온 제한적인 관점에서 시각화된 난민의 모습이 아닌,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들으며 아무것도 포장되지 않은 난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학교에서 복음을 접한 난민 아이들을 통하여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씩 여시고, 전쟁으로 고통 받고 타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바라 보면서, 어찌 보면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는 모습이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동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영환 형제)

4년전 레바논 단기선교에 참여했을 때, 현지 청소년 사역팀과 더불어 청소년 캠프에 일주일동안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인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한명이 무슬림 배경의 학생이었고, 복음을 향해 완강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진지한 대화 끝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며 아쉬운 마음으로 떠나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동안 이따금씩 그 아이가 생각났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4년이 지나 다시 찾은 레바논에서 그 아이를 만날수 있었고, 얼굴을 보는 순간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I am no longer a rebel (나는 더 이상 저항자가 아니예요)"라고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네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고, 이제는 그 청소년 기독교사역단체의 자원봉사리더가 되어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단기선교는 직접 가는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재정으로 동역해주시는 지체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함께 각자의 말은 바를 헌신하며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동역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동역자와 미래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선교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그 한쪽의 그림에 하나의 퍼즐로 참여할수 있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그림을 한 걸음 더 완성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규진 목사)



# 빌리지 알림판

## @ 한인부

### 1. 포틀랜드 카이로스 선교훈련

제1기 포틀랜드 카이로스 선교훈련에 한인 성도님들을 초청드립니다. 카이로스는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40여개 언어로 시행되고 있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가치와 초점을 재조명하는 것을 돕는 훈련 과정입니다. 포틀랜드 지역의 여러 한인교인들을 대상으로 오픈됩니다.

- 일시: 8월 24일 (수) -28일 (주일), 9am-6:30pm (단, 주일은 2-6pm)
- 참가비: \$120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Willamettes)
- 인원: 총 40인 (그중 빌리지에서 선착순 25인)
- 문의 및 신청: 조용희 형제

### 2. 빌리지 한인부 영적 리더십 훈련 (8/12-12/16, 매주 금요일 7pm-9:30pm @ Willamette A)

‘복음전도,’ ‘초기제자양육,’ ‘선교적 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빌리지 한인부 영적 리더십 훈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드려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을 초청하고, 목자님들은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임종화 목장사역팀장 (8월 7일까지)

### 3. 레바논 단기선교 보고회 및 한인 헬로우업

올 여름 레바논 단기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식사가 준비되며, 참석하셔서 선교팀으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함께 감사로 즐거워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인 헬로우업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 일시: 8월 7일 (오늘), 10:30am/ 12:30pm
- 장소: Gym

### 4. ‘기쁨으로 찬양집’ 7집 판매 (\$10/권)

업데이트된 새 ‘기쁨으로 찬양집’을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판매합니다. ‘기쁨으로 찬양’은 빌리지 한인부의 목장모임과 새벽기도, 기도회 및 각종 모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의: 이광석 형제).

### 5. 새싹회 모임 (8/9)

새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 이희복 자매).

- 일시: 8월 9일 (화) 오후 12시
- 장소: 이승호 형제 자택

### 6. 한인부 도서관

새로운 도서가 입고되었습니다. 주보의 신간목록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한인부 도서관은 체육관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 안에는 대여 도서와 더불어 무료 도서 섹션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정혜순 자매).

### 7. 날마다 솟는 샘물 8월호 (\$4/권)

8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판매합니다.

## @ 가족 공동체 소식

### 1. 가족 공동체 소식

출산, 장례, 결혼, 이사, 이주 등과 같이 빌리지 한인부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교우 소식을 매주 금요일까지 kf@vbconline.org로 알려주시면, 주보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장례

박영미 자매의 부친 (박헌상 형제의 장인)이신故 변우 성도님께서 지난 8월 1일 한국에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 은교회

### 1. 오늘 주일 예배 (8/7)

오늘 예배는 온 교회 연합예배로 드리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Eric Knox는 SE Portland에 위치한 Imago Dei Community의 목사입니다. Eric 목사님은 LA에서 태어나 OSU의 농구 장학생으로 오레곤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후 소명을 따라 목회자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된 교회는 화합된 (Reconciled) 공동체임을 믿으며, 특별히 인종간의 화합을 위한 사역에 오랫동안 헌신해오셨습니다.

### 2. 음식 봉사자 (Meal Ministry) 모집

여성 사역부의 음식 봉사팀에서 음식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수술, 질병, 출산등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 보통 2주에 걸쳐 음식을 공급하는 자원 사역입니다. 보통 매월 1-3번 정도의 음식을 공급하며, 이는 각 음식 봉사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Jen Spickelmier, jens@vbconline.org)

### 3. Promiseland Kids (1학년-5학년) 안내

8월에는 Promiseland가 없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 4. The Gospel and Race 특별 모임

오늘 예배에서 나눠진 말씀에 반응하며, The Gospel and Race의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와 논의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일원으로 깊게 교제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 일시: 8월 7일(오늘), 5-7pm
- 장소: Columbia Room

### 5. 지역사회와 더불어: 반즈 초등학교 환경미화 (Community Care Day)

올해는 예전과는 달리, 지역의 여러 다른 교회의 팀들이 모여 함께 봉사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길 기대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Insil Kang (insilk@vbconline.org)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나 당일 학교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 일시: 8월 13일 (토), 8am - 12pm
- 장소: Barnes Elementary School

### 6. 미디어 기사 모집

주일 예배에 사역하실 미디어 기사를 모집합니다. 트레이닝 받으실 기회가 있으므로, 무경험자도 환영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connect card에 “media operator”라고 써서 제출하여 주시기나 info@vbconline.org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7. 하이킹 & 산책 (8/18(목), 8/25(목) @ Forest Park)**

Sandy Maines가 이끄는 여성 하이킹 그룹의 Forest Park 오후 하이킹 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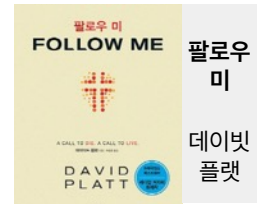
- 8월 18일 (목), Newberry Rd
- 8월 25일 (목), Middle Park loop

오후 4:15에 만나서 4:30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불균일한 지형의 중급 하이킹으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 정도 전까지 Sandy (smaines1@frontier.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경로는 당일 아침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하이킹에 적합한 신발, 선크림, 물, 간식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8. 귀국 선교사 가정 동역**

8월 말 잠정 귀국하시는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동안 필요하신 주택과 차를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선교부 사무실에 있는 Leslie Erickson에게 알려주십시오. (leslie@vbconline.org)

**Spiritual Reading**  
**발리지 한인부 도서관 신간소개**



<b>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b> 김세운	<b>성경 쉬운 지도</b> CM	<b>교회, 나의 고인</b> 나의 사랑 필립 안시	<b>관계중심 시간경영</b> 황병구	<b>느긋한 제자</b> 앨런 패들링
<b>세이버 교회</b> 유성준	<b>일 삶 구원</b> 폴 스티븐슨	<b>오감으로 성경읽기</b> 김동문	<b>온전한 그리스도인</b> 존 스토틀	<b>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b> 필립 안시
<b>저녁 기도</b>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b>노년의 의미</b> 폴 투루니에	<b>돈에서 해방된 교회</b> 박득훈	<b>왜 용서해야 하는가</b>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b>시리아의 눈물</b> 노경실
<b>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b> 마이클 윌리엄스	<b>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b> 최영기	<b>기독교의 기본진리</b> 존 스토틀	<b>엄마는 오늘도 소금땅에 물 뿌리러 간다</b> 최유진	<b>말하는대로 살고 사는대로 말하라</b> 유진 조

**2016 헌금 업데이트**

6월 헌금 참여자	530
1-7월 예산	\$1,885,983
1-7월 헌금	\$1,623,175
6월 헌금	\$223,958
매월 목표 금액	\$269,426
7월 1-31일 헌금	\$252,042

\* 헌금 참여자 (giving participant) 란? 헌금을 내는 1인 또는 1가정을 뜻하며, 대학생 한 명을 1 giving participant,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을 1 giving participant, 부부를 1 giving participant으로 간주합니다.